

한전, 직원 복지 축소 재무위기 극복 안간힘

희망퇴직 위로금 마련위해 '성과급 반납 동의서' 받아... 직원 반발도 명절 상여금·유급휴무제도 폐지 등 지원비 삭감에 250억원 예산 절감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임직원의 임금·성과급을 반납하고, 직원 복지를 축소하는 등 유례없는 재무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30일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22일부터 25일 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급 반납 동의서'를 받았다. 성과급 반납 동의서는 명칭 그대로, 직급별로 발생하는 성과급을 반납할 것인지 아닌지 묻는 내용이 담겼다.

한전은 지난해 6월에 발표한 한전 '2022년 경영 평가'에서 'D' 등급을 받아 성과급 지급 대상기관이 아니었으나, 지난해 중순께 일부 평가 항목에 대해

정부와 조정 끝에 'C' 등급으로 상향됐다.

성과급 발생으로 한전 사측은 임직원들에게 성과급 일부를 자발적으로 반납할 지 의사를 묻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직급별 반납금액은 1급(100%), 2급(50%), 3급(30%), 4급 이하(20%)로 알려졌다. 성과급 반납에 동의한 직원은 다음달 지급될 성과급에서 직급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성과급이 공제될 예정이다.

특히 성과급 반납 동의를 묻게 된 건 최근 한전의 어려운 재정상태가 주된 이유다. 한전은 재무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자구책으로 희망퇴직자 신청을

받아 인건비를 감축하기로 했다.

한전은 이들 희망퇴직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려고 했으나, 재정악화로 위로금 지급이 어려워졌고 2급 이상 직원의 임금인상분으로 충당하려 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어려워 지자 기재부에 위로금 지급을 위한 재정 지원을 요청했으나 타 공공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거절됐다.

한전은 결국 희망퇴직자의 위로금 마련을 위해 전 직급의 성과급 반납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한전은 성과급 반납 여부를 직원들의 자문에 맡겼지만, 사실상 동의를 강요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직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반영하듯 대다수 직원들이 성과급 반납에 참여할 것이라는 한전 사측의 기대와는 달리 반납 동의서 제출기한 마감일이었던 지난 25일 기준 직원들의 성과급 반납 동의율은 57%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MZ세대인 4급 이하 직원들의 거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3급에 해당하는 차장 이상 급간부들은 80% 가까이 성과급 반납에 동의했지만, 4급 이하 직원들의 동의율은 5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한전은 희망퇴직 위로금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고려했던 기재부 지원금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다, 전직원 성과급 반납 여부마저 낮은 동의율을 기록하면서, 성과급 반납 동의서 제출 기한을 다음 달 2일까지 연장한 상태다.

한전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책으로 성과급 반납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매년 지급해왔던 명절 상여금과 기념일 지원비, 유급휴무 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한전은 지난 16일 연봉 및 복리후생관리규정 시

행세칙을 개정하면서, 명절 및 기념일 지원비 지급 조항을 삭제했다. 경영난을 겪는 한전 입장에서 지난해 추세에도 직원들에게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는 근거 조항 자체를 폐지하면서 예산을 절감하기로 한 것이다.

한전은 기존 설·추석 등 명절에 전 직원에게 40만원의 명절 상여금을 지급해왔고, 근로자의날·회사창립기념일·노조창립기념일 등 기념일에는 10만원을 지급해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 지원비가 전액 삭감되면서 약 250억원 가량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한전은 취업규칙 및 상임임원복무규정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창립기념일(1월 26일)과 노조창립기념일(11월 24일)이 속한 주의 유급휴무도 사라지게 됐다.

/장윤영 기자 zzzang@kwangju.co.kr



사학연금, 한철캠페인 동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은 최근 생명존중과 나눔 문화를 실천하기 위해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이 주관하는 한철캠페인에 참여했다고 30일 밝혔다. 한철캠페인은 임직원의 사전 신청을 받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광주전남 혈액원의 한철버스 내에서 진행됐다. <사학연금 제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토론회 개최

내일 농업정책 현황 등 발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오는 2월1일 오후 1시30분 서울시 여의도 전경련회관 3층 에메랄드홀에서 '제1회 KREI 농정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토론회는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을 주제로 쌀·채소 등 주요농산물에 대한 가격보장제와 쌀 무매입 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국내외 사례를 발표하고, 전문가들이 토론회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박은전 알간사스 대학교 교수, 이토 쇼이치 규슈 대학교 명예교수, 김종인 인천대학교 교수, 안병일 고려대학교 교수 등이 국내외 농업정책 및

현황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이후 열리는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황윤재 KREI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강정현(사)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 강정화 한국 소비자연맹 회장, 김상호 KREI 연구위원, 김성훈 충남대학교 교수, 김영준 강원대학교 교수, 박노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한 데 모여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한두봉 KREI 원장은 "산지 농가에서 안심하고 농업에 집중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이번 토론회가 한국 농업이 현재 직면한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zang@kwangju.co.kr

한국농어촌공사 침수지역 배수장 점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지난 29일 상습 침수 지역인 산호배수장과 송촌배수장을 방문하고 시설 현황을 점검했다고 30일 밝혔다.

나주시 문평면 일원은 집중 호우 등 강수량이 많은 시기 산호배수장과 안곡2배수장을 통해 배수하고 있지만, 배수 용량이 부족해 상습적으로 침수가 반복되는 침수 취약 지역이다. 나주시 다시면 역시 송촌배수장이 있지만 잦은 침수 피해를 입어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다시면을 신규사업 지구로 선정했고, 농어촌공사는 기존 배수장 펌프 교체 설계 및 배수장 신설 등 배수로 정비를 추가 추진할 계획이다.

/장윤영 기자 zzzang@

한전, 전주 무단 설치 통신선 일제 정비

내일부터 집중 정비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오는 2월부터 전주에 무단으로 설치된 통신선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통신선이 설치된 전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한전은 그동안 전주에 설치된 통신선이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안전에 우려된다고 판단될 시 통신사에 시정을 요청해왔다.

하지만 한전의 지속적인 통신선 시정 요청에도 불구하고, 통신사의 시정 조치율은 지난 2019년 84%에서 지난해 63%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에 한전은 안정적인 전기사용을 위해 전주에 설치된 통신선들을 일제 정비하기로 했다.

한전은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전국 전주에 무단설치된 통신선 4만km 가량을 완전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지상으로부터의 높이가 시설기준보다 낮거나, 6차선 도로를 횡단하는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곳에 무단 설치된 통신선을 집중 정비할 방침이다.

현재 전국 1017만여개의 전주 중 통신선이 설치된 전주는 411만여개로, 이중 38만여개의 전주에 무단으로 통신선이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주에 설치된 통신선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며 "통신선을 무단 설치하거나 시설기준을 위반하고도 시정 조치하지 않는 통신사에 대해서는 법적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zang@kwangju.co.kr

한전KDN, 공기업 최초 협약이행평가 우수 등급

공정위·조정원 평가

한전KDN은 지난 25일 발표된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공공기관 최초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이 공정한 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 및 상생협력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 및 이행할 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조정원)이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다.

한전KDN은 공공부문 최초로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참여했고, 공정위 협약제도 도입을 자발적으로 제안해 공공부문으로의 협약제도 확산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이행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장관상을 표창하고 향후 1년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등 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정수옥 한전KDN 기획관리본부장은 "중소협력기업과의 상생을 실천하는 등 공공부문으로의 협약제도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zang@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